농민주보

이주보는 군정청공보과에서 발행하야 조선농민에게보내는 농민신문이다

십시오 논아보

사설

한로물의 운명

이번 사람들을 일행이 길은 산골속에서 짓을 산꼭때기로 가기 위하야 가기로 하였었다 야 산 꼭때기에 야 그리데, 그 물통은 퍽 숙하게 되었었다 그 무거웠섯다 산 꼭때기로 하자」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목이 말라서 산 밑으로 물을 길러 나려와 통에다 물을 한아이지 길러 올리라는것이 미련한 일이다 물은 모래 위에 젓리는 흔적만 남기고 땅속으로 흘러 드러가 버리고 마렀다 뵈의 한파 안내력 있을것이다

기로 올라가면 갈수록 물통은 더 무거워서 도저히 아것 을 들수가 없게 되었다 그때 그사람들은 가젓든 물통을 다 그 자리에 내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들은 이 현재, 조선은 이 귀한 물을 나노올때 중한 물통을 등위에 지고있는 현상 이다 이 길을 지연시킬 것이다 그러면 결국 등에진 짐은 땅에 떠러지 깨지 버리고 말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두 수고한만큼 나 만일 우리가 모 든힘을 한군대로 뭉친다면 우리는 전조 선동포와 우리 자신 을 위하야 우리가 하여 수있기 때문이다 그러하야 우 희망하고 있는 성공 되었다 미소공동위원 회의 영반속 대표들 을 위한숙소와 사무 소 등에대한 제반준 비는 알묘되어 있음 으로 북조선으로부터 소련측대표가도착 하는대로곳 회담이 개 시도리라고 예측된다

아-놀드

미국측수석대표

아-놀드 소장을임명

지난三 트랜돈」씨는 조선주 四〇년부터 동四一년 원십四 찰 미국 총령사로서 까지 백리공사로 임 일제二 그전에는 중화민국의 명되여 『아후 간니스 四군자 만주봉천파 꾼명(昆 탄』의 『개불』에미국공 명관하 뻐)의 령사로있었다 사관을 처음으로 설 지중 써는 석정자작외교전 치하였다 一九四〇년 장은다 (石井子爵外交顧) 이란 씨는 국제공동비서국 책을저작한분인데 일 사단포병대장이 되었 음파같 장교로있었다 포병장 난, 가나다, 조선, 중화 교로 있었다 동사 하였다 만국, 만주등지 에서 령부대 사령부 행정장 남조선 미국무성 파리로서 교로 임명 되기전에 미군점 봉작하였다 『데이야』 一九四三년 육군지상 부대 씨도 역시 외교관으 니야급 비룰빈에있 로써 오랜 이력을갖 었다 一九三三년 는남태평양 지역사령 이고있다 一九三三년 미국육군 사관학교졸 부에 봉직 하였다 업후에 모스코-주찰 미국대사관부 무관과 론문으로 졸업하였다 모스코 주찰 미국대 사관 서기로 二개 년 그후에 『오스도라 스라비아』에대한 군 사적 분석』이라는 학교교관으로있었다 一九四一년 이후 사관의 서기와 아울러 리간후 싸늘유-고 로 임명되였다 부관으로 一九四二년 『데이야』 『최스·다불유·데이야』씨는 『컵트로군의 부령사 부-스』대좌는 『푸랭크』 에치·부리든』 대좌이 라는 이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측 수석 대표로 임명되였다 이 소장 이의 대표로는 『위 리암·알·랜든』 씨 정장관 아-놀드 소장 이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측 수석 대표로 임명되였다 이 소장 이의 대표로는 『위 리암·알·랜든』 씨 『최스·다불유·데이야』씨는 『컵트로군의 부령사 부-스』대좌는 『푸랭크』 에치·부리든』 대좌이 라는 이 미소공동위원회의 미국측 수석 대표로 임명되였다 이 소장 이의 대표로는 『위 리암·알·랜든』 씨

미소공동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미국대표의 목적

하-지중장 성명서

지난三월十一일 하-지 아니다 모-든 민주주의 단체에 중장은 『미소공동 위원회의 주주의 이러한 자유의 대하여 온건파거나 과격 에 대한 미국대표의 목 기초 우에서 출발하게되 파거나 또는 자본가거나 적』을 다음과같이 발표 는것이매 따라서 그것은 공산당이거나를 물론하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그것만을 오 미소공동위원회가 시작 직 제재가 없이 자 로지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롭게 집회와 연설과 선 되는 이때를 당하여 미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것 전과 출판물 하도록 허 소공동위원회에 대한 미 은 절대적 성질을 가지 가하여온것이다 이러한 자 국대표의 목적과 또 이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유사상은 미국국민의 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는 예외도없고 또 예의 본적정신인데 조선국만도 미군사령부에서 취해온 모 든 방침을 성취하여 두 는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는바이다 제一 먼저 미 민주주의적 사상이나 또 는 민주주의적 단체를 물 론하고 그들의 단원이 소 속하고 있는 국가로써 아러한 자유롭 누릴수있도록 조력하기를 하망하는바이다 /모스코- 삼상회의에 발표된것과 같 이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조선의 임시정부수립을 원 조하여 또그수립을 위한 모든 방법을 연구할것과 서는 조선의 남북을 통

와싱톤의목적

비국민적 행동을 조장

비국민적 행동을 조장하는 조사위원회의 회장 『죵오드』씨 비공식 발표에 의하면 약간의 미국인도 포함되었으나 외국인 『류-옥』파 『오크리쥬』 시에있는 원자폭탄제조공장 간에걸쳐 활약하고있는 모양이라 한다 동씨는 이탈정부가 발표한 『로서아 합정이 미국에 있어 원자폭탄의비밀을 탐지하기에 활약하고있다는 사실에 맛이 많은 세인의 이목을 용동시키고 있다한다

부에노스 아이러스

최근 『서반아』영사관에 강렬한 폭탄이 투하되었으며 또 이탈정부 적발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상분도 듣지못하였다한다 그러데, 최근 『다닝』 부가 발표한 『로서아 합정이 미국에 있어 원자폭탄의비밀을 탐지하기에 활약하고있다는 사실에 맛이 많은 세인의 이목을 용동시키고 있다한다

논아보 십시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식량난국을 돌파하자

증산과 절약을 격려

리 J 처장관 성명서

지난 三월十三일 문정장관은 목 만흔 폭풍을 재배하 하셍이 뒤리고 권고하였 러나 취소장은 현재 조선 는등시에 대량식로 경하 다하다 그런데 나는 미국 이 당면하고있는 이식량 어야한다고 말 하였오며 지도자들에게 조선을구원 난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또 전 미국대통령 「후ㅡ 하라고 요청하였다 그리 다음과같은 증산과 절약을 버ㅅ씨 (현재 외국식량고 나 우리가 원하는 량조 격려하는 성명서를 발표 문) 는 미국민에게 각기 전부는 어를수가없을것이 하였다하다 「악성통」에서 「인퍼선」 농무장관은 하원 (下院) 식량대책위원회 석상에서 세계적 기 근상태를 광지하는 유 한 기회는 오는 四개월 에 있는데 미국은 만흔 희생을 하여야한다고 언 명하고다시 전미국인에게 곡물이 부족할으로 됨에 감저를 사용하라고 강조하였다하다 현재 만흔 조선인이 굶주리고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조 선인에서 만흔 식량이랑 비되고있음을 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보 추 민 동

조선농회의 재조직

농민의 복리증진을 목적

우리농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 새로조직된 조선농회의 내용을 다음에소개하겠다

一、조선농회는 과거에있어서 농민들에게 중요한 고무제품, 접가, 농촌동의 저축률가지고 있었다 농회는 농민들을 직접 구입하여 농민들에게 인적으로 또는 감독관청을 통하여 지도하여 왔다 그리하여 농민생활에 대하여 중요한 촬동을 하였든것이다 그럼으로 농민들은 이 농회를 매우 중요시하는 동시에 상당발은로 대부하여주었다

(가) 가축에관한사업 사진, 농회보, 품평회등을 통하여 개량증식하기를 도모함

(나) 농산물의 무입과 판매에 관한 사업 농회에서는 농민들의 편리를위하여 농산물을 직접 농회의 경비는 회비로서 충당하여 농민에게서 구입하여 상인 지세(지세국세의二할五부 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또 이를 처리하여 농민과 상인사이에서 소비폭과 농산물을 취급하는 중개자의 폭리를 방지하여 수요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고 또한 생산자의 보조금등 수요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고 또한 생산자의 보조금등 수요로 하여금 편리하게 하고 또한 생산자의 보조금등

한글 강좌 (3)

이번에 말씀하여드릴것은 된소리입니다 이 된소리는첫소리로 나는

자음을 발음할때 꼭 눌러서 되게 내는것인데 첫소리로 나는 자음과 꼭같은 자음을 나란히써서 표시합니다이를테면 『ㄱ』자를 된소리로 낼라면 자음 『ㄱ』과 꼭같은 자를 나란히 써서 『까』로 표시합니다 이와 같이 『다』는 『따』로 『도』는 『또』로 『바』는 『빠』로 『부』는 『뿌』로 『사』는 『싸』로 『시』는 『씨』로 『자』는 『짜』로 『조』는 『쪼』로 표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무슨 자든지 다 된소리로 날수는 없습니다 『ㄴ』 『ㄹ』 『ㅁ』 『ㅇ』 『ㅋ』 『ㅌ』 『ㅍ』 『ㅎ』의 여덟가지 자음은 된소리로 날수가 없으니 이것들은 같은 자음을 나란히 써서 첫소리를 표시할수가 없다는것을 알아두십시요 어디서든지 이러한 글자는찾아 보실수가 없습니다 된소리나는말은 여러한 말들이있나 몇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1) 『ㄲ』 소리로 나는것

『까귀』 『두꺼비』 『꼬랑지』 『꿀』 『끄린다』 『도끼』……등

(2) 『ㄸ』 소리로 나는것

『땅』 『떡』 『똑똑하다』 『뚝배기』 『우뚝하다』 『띠』……등

(3) 『ㅃ』 소리로 나는것

『빨래』 『뺨』 『거뻐하다』 『뻑다귀』 『뽕나무』 『뿌리다』 『바쁘다』……등

(4) 『ㅆ』 소리로 나는것

『쌀』 『썩었다』 『쏙』 『쓰라리다』 『씨앗』……등

(5) 『ㅉ』 소리로 나는것

『쩜찌리』 『쩔쩔맨다』 『쭉박』 『쭉』 『뻰다』 『찌게』……등

우리말에는 우에든바와같이 된소리나는 자음은 다섯가지 밖에는 없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것은 이전에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께서 우리국문을 통일없이 마음대로 쓰시던 때에는 『ㄲ』 『ㄸ』 『ㅃ』 『ㅆ』 『ㅉ』의 다섯가지 자음 어느것에나 『ㅅ』을 붙이어서 된소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테면 『ㄲ』의 된소리는 『ㅅㄱ』으로 『ㄸ』의 된소리는 『ㅅㄷ』으로 『ㅃ』의 된소리는 『ㅅㅂ』으로 『ㅉ』의 된소리는 『ㅅㅈ』으로 이와같이 썼는데 이와같이 씀은 음리【音理】에 맞지 않고 원리【原理】에 어그러지는고로 된소리를 표시할때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것이 옳습니다 아직도 어른들께서 틀리게 쓰시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곧어서바로 쓰시도록 하게 하십시요

어린이를바르게지도하는법

박 봉 애 ④

이렇게 점점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 점점 독립하지 않으면 않될 어린이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 하여 걸을때나지 못하게 하여 그아히의 큰 불행을 갖어 오게 한다는 것을 알어 두어야 할것 이다 그래서 어린이가 점점자라는 게단을 따라 주위의 사람들이손을 떼는것이 독립심을 길우워주는 유일한 열쇠다 그럼으로 젓떨시기가오면 반드시 젓을떼게하고 또 혼자 놀게하고 처차 숫가락을 잡을때는 걸에서 돌보아주면서 혼자 웃을입고혼자 양말을 신겟다면 그대로 식혀줄 것이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혼자 할수있는 일이라면 혼자 하도록 말겨둘 것이다

이는제사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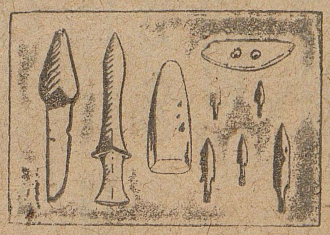
국 사 (三)

(군정청 학무국편수과편찬)

3 상고의 문화

『산 업』

상고때 여러 나라의살림살이하든 모양을 살펴보면 부여는 들이 넓고 판판하므로 오곡이 다 잘되고 짐승도 길러서 좋은 말과 피물이 낫고 붉은옥 이여쁜구슬 금 은 흰베 고운비단같은 여러물건이 많이 나왔으므로 국민의 살림이 부유하였고 예국은 삼을 심고 누에를 쳐서 길삼하기에 힘썼고 농사짓기에 많은 관심을 갖저 벌을 보아서 풍년과 흉년을 미리짐작하였으며 피물과 말과 바다고기가 많어 나서 남의 나라에 내다 팔기도 하였고 옥조는 산을 등지고 바다에 향하며 땅이 걸으므로 농사가 잘되고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났으며 마한과 진한에서는 농사 짓고 누에 치며 천을 짜서 입었고 진한에서는 쇠부치가 많이 나서 이웃 나라에 팔기도 하였으니 이것이 곧 쇠그릇을 쓰기 비롯한 기록으로서우리 살림살이에 한 새로운 서기를 일운것이다



『종 교』

하느님께 제사지내는 일은 여러나라가 거의다 같었으니 부여 에서는 十二월에 예국에서는 十월에 마한에서는 五월과 十월에 천제를 지내되 온나라 사람이 여러날동안 노래하며 춤추고 주식을 잘 먹고 노리하였으니 이것은 곧一년농사 짓는중에 봄에 심음과 같에 걷음이 잘 된것을 기뻐하면서 하느님께감사한 뜻을 뵈

『풍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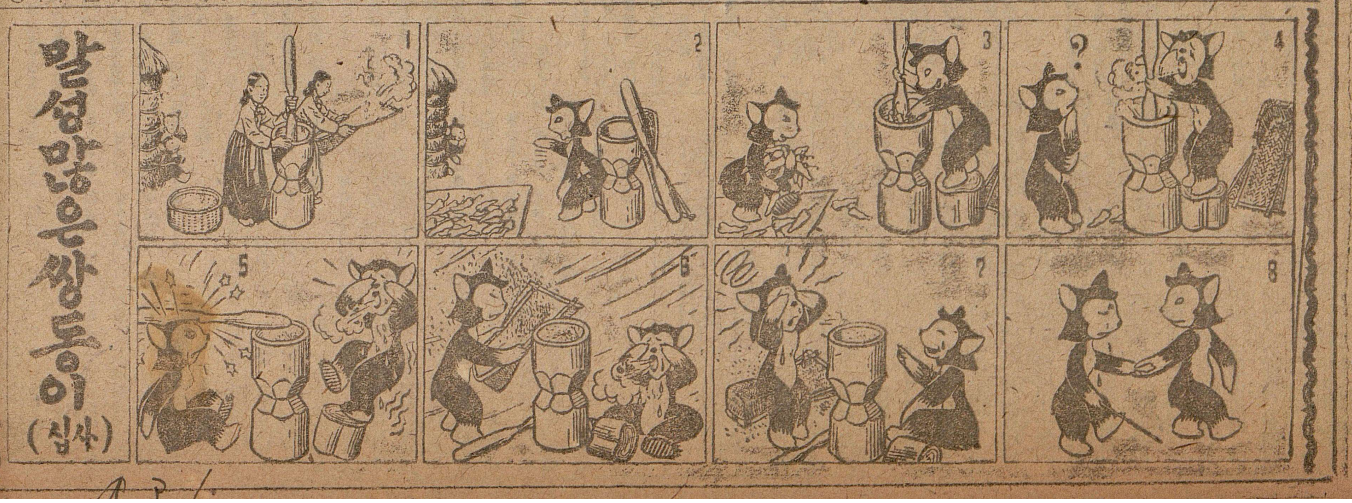
풍속으로 보면 부여에서는 살림이 넉넉하고 예절을 숭상하므로 도적이 적고 정조를 중하게 여겼으며 입은옷과 먹은 그릇이 다 발달되었고 여러사람이 뭉여 놀때는 서루 대함과 술잔을 주고받는법이다 에에 맛으며 버단옷과 털배자를입고 금 은으로 모자를 장식하며 가죽신을신고흰옷을 입으며 음악을좋아하여 노래소리가밤낮으로끊이지 아니하며 여러가지로 호화한 살림을 하였으니 지금껏 우리에게 그 여풍이 남아 있는것이 많다 에에서는 일가끼리 혼인하지 않하였고 진한에서는 에로써 혼인하였으며 변한에서는 웃을 깨끗이하여 입기를 좋

분주한 어머니로서는 일을해서 처워버리고 다른일을 보아야 겟음으로각급하여 어린이게 말거자 못하는 어머니들이 많은데 이것이 잘못이다이기서 가많이 손을떼고 보는것이 독립심을 길우워주는 비결이다

명령을듣지않는어린이를 순종하게

명령에복종식히려고 하지말것 어린이들은 부모가 복종식히려고 한다고 복종하는것이 않이고 복종식히려고 안해도 복종하는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의 이야기를 다 아시지요 어떤 때 바람과 태양이 서로힘이 세다고 싸흠이 버러젓습니다 그래서 힘내기를 해보게되었는데 그때 마침 저만 곳에길을 걸어가는 행인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행인의 두루막을 벗기기로 하였는데 먼저 바람이 그바람 주머니를 다쏠아행인의 두룩막이 찟어지도록불어 대었읍니다 그러나 행인은 두루막을 벗기는 커녕 점점옷깃을 단단히 여미고 지나 갓읍니다 할수없이태양이 빙그레 웃으면서따뜻한 햇빛을 쨍쨍나려쪼이기 시작햇읍니다 그랫드니 행인은어떻게 더웟든지 두루막을벗고 땀을씨섰읍니다 이 이야기는아주 유명한 이야깁니다

아하였고 마을사람들은 베옷에 집심을 신으며 부지런히 일하였다

『문 자』

한문은 에로부터 써 왔나니 근년에 평양근처에서 파낸 진파 (秦戈)는 二一二년에 지은창으로서 앞뒤에 새긴 한문 二십五자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에 가장 오래된 글씨이니 이로 미루어 보면 그때 또는 그 이전부터 한자를 배워 들어 썼을것이다 그러고 평양근처에서 파낸 여러가지 질그릇은 다 전후한 (前後漢) 때 것으로서 잘人쓴 글씨와 잘 그린 그림이 많이 그면面에 나타나 있으며 이 밖에도 종파비에 새겨있는 글씨도 있으니이것이 다 한문학 (漢文化) 가 들어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든 자취이다